

사설

분규사찰문제 조속해결 기대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전철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법답게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물과 젖을 합한 것과 같으니 불법을 같이 배워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사본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어지는 계승에는 “원한은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깊음이 없으므로 원한은 사라진다”고 친승한다. 새삼스럽게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모처럼 전개되고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화해무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해무드가 아니라도 많은 미래학자 내지 지성인들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막중하리라고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주 내지 유럽에서 불교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종교 사회의 도래와 함께 불교가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진 것은 이

미 오래이며, 불교 하면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상으로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해방 이후 지루하게 전개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라 말할 수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대 종단의 숙원을 해결하지는 제안을 했으며, 이에 양측이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실무진들에게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몇 년이래 분규사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삼보정재는 어느 개인의 것도, 특정 종단의 것도 아니다. 교단 구성원 전체, 한국불교도 전체, 나아가 한국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전체의 것이다. 작은 것에 매달려 지리멸렬할 시간이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양보로 두 종단의 합의하에 분규사찰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고대한다.

불교 민영교도소 서둘러야

격려수용과 감시감독 위주의 교도행사에서 자비와 교화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민영교도소가 내년 1월부터 우리사회의 가시권(可視圈)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 민영교도소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불교계의 적극 추진에도 또한 기대를 걸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격려와 징벌이 아니라 수인들을 교화 교정(矯正), 그들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주거나 하는 근대적 의미의 교도정신은 무엇보다 종교적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이미 민영교도소가 전체교도소의 10% 전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단체 중심의 교도소가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 예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내년 초 민영교도소 사업자를 선정할 법무부가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교도 행정에서 징벌의 문제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구속 통제 등 징벌권이 과연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에 속할 수 있는지는 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경제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3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초기투자액도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영교도소는 불교계가 힘과 지혜를 기울여 운영해나가야 할 범종단적 사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범죄인 교화(교화)로 종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사업이나 선진국 민영교도소가 초기 적자를 부대사업 등으로 극복, 이제 상당한 흑자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영교도소가 중대한 종교적 역할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불교 민영교도소의 성공은 불교계의 지평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종교계 지평관도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내년, 우리는 불교 민영교도소의 발족을 지켜보며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중앙승가대 교육환경 열악

전산화 미비·교수연구비 등 낮아...종단 지원 절실

교육부 종합평가 지적

중앙승가대의 교육환경이 일반 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승가대는 11월 28-29일 이틀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종합평가에서 전산화, 타대학과의 교류, 교수 연구 활동 등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에 따르면, 도서관-전산실-수업관을 하나로 묶는 전산네

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또 교수와 학생 간에 이메일조차도 주고받을 수 없는 등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CD나 VTR 등의 기자재가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한 달 도서구입비가 다른 대학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조건 역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으로서는 유일

하게 유급 조교가 없고, 교수 연구활동비도 일반 대학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학교 전체 예산 중 교수 연구개발비는 1%로, 교육부 기준 4%에 크게 못미쳤다.

대학과 불교화 발전의 중요 관건이 되는 국내의 대학과의 교류 및 부속기관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과의 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 교류도 일본 경도불교대학이 유일하다. 같은 종합학교인 동국대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국역연구원, 불교사학연구소 등 부속기관 4곳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평가단은 이같은 현실이 재원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학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까지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승가대의 한 관계자는 "재원의 60% 이상을 종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단의 지원이 늘지 않는 이상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영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취임식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3일 오후 서울 새검정 하원각에서 제3대 회장단 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권택스님, 각 지역 신도회장과 외부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각 지역신도회장이 도영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한영우 기자

태고종 부장급 스님 인사

총무-혜공 때까지 과도기 3부장 겸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기획-월해
교무-동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1일 총무원 총무부장(재무부장 겸직)에 우혜공스님(대구 관암사 주지), 기획부장(규율부장 겸직)에는 김월해스님(대전 금강정사 주지), 교무부장(사회부장 겸직)에 고통우 스님(홍성 기원정사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태고종은 내년 1월말 열리는 임시중앙총회에서 종단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조계종 '승가교육 전망' 좌담회

무비·법정스님 등 참석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이 12일 오후 1시30분 교육원 회의실에서 종단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수행 및 교육 풍토 쇄신과 확산방안 ▲승가교시 시행 성과와 전망 ▲기본교육기관 체계화와 중앙승가대 위상 정립 ▲강원교육에 대한 진단과 전망 ▲특수전문교육 활성화 방안 ▲사미의제 정착과 법계에 따른 승가위계 시행에 대한 전망 등 종단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좌담회에는 무비(교육원장) 법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무비(승가교시위원회 위원장) 무

관(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종립(고려대장경연구소장) 홍선(중앙승가대 교수) 지오(교육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형(청암사 강주) 향(종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스님들이 참석한다. 한영우 기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일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만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일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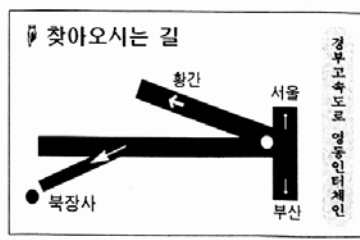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羅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으로 부처님의 복덕구주 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은행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 교통편
- ◆고속버스 : 서울-상주
 - ※택시이용
 - ◆기차편 : 김천-상주
 - ※택시이용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